

부처님오신날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불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되고 있다. 기념의 방식과 내용,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남방·티베트불교 4월 15일 '베삭축제'

(부처님 오신날)

중생스스로 미망에서 깨어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길을 보이고자 사바세계에 나무신 부처님을 찬탄하는 축제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해외선 어떤 봉축행사 펼쳐나

우리나라와 같은 북방 불교권이나 북방 불교가 우세한 지역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기준으로 봉축일 행사를 한다. 그러나 남방 불교나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곳에서는 음력 4월 15일(양력 5월 26일)을 '부처님의 날'(Buddha Day)로 정해 다양한 베삭(Vesak, 또는 Wesak) 축제를 펼치는 곳이 많다. 베삭 축제는 부처님의 탄생뿐 아니라 성도 및 열반을 함께 기리는 행사로, 남방 및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서구에서는 초파일 행사를 베삭 축제로 대신하고 있다.

는 홍콩불교협회 주관의 기념법회가 열리고, 불교계 학교 주관으로 각종 강연회와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화교문화권인 싱가포르에서는 5월 7일을 베삭 대일로 지정, 전체 불교사원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 열반을 기억하며 경전을 독송하고 새를 놓아주는 방식 행사도 갖는다.

음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일본의 경우 양력 4월 8일을 부처님오신날로 지정해 각종 기념 행사를 하고 있다. 이날 각 사찰에서 불생회(佛生會)라는 법회를 갖고, 맑게 걸린 녹차로 아기 부처님 관욕식 등을 치른다. 또 일본은 하나 마찌리(꽃의 축제)라는 의식을 전국적으로 펼친다. 4월 중 꽃이 만발하는 시기에 개최되는 이 행사는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 쓴 글을 앞세운 꽃가마의 행렬이 이어진다.

미주 지역의 사람들은 음력 4월 8일, 또는 4월 보름인 풀문데이(Full Moon Day)를 전후해서 봉축행사를 열기도 한다. 또한 음력을 세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양력 4월 8일에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 대부분의 선 센터와 LA의 일본계 사찰에서 양력에 행사를 갖는다.

미국 뉴욕불교 국제봉축위원회는 12일 지난해 발생한 9.11 테러에 희생된 영가들을 위로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국제봉축법회 및 제등행렬을 할 계획이다.

캐나다에서는 26일 토론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불교행사가 열린다. 토론토의 중국계 사찰에서는 관욕식을, 일본계 사찰에서는 빛으로 가마를 만들어 거리를 행진하는 봉축퍼레이드를 펼친다.

유럽에서는 남방 및 티베트 불교의 영향으로 다양한 베삭축제가 열린다. 티베트 불교의 영향이 큰 독일 베를린에서는 사카제단, 타오 찬 센터 등이 주관하는 거리행사와 만찬회, 강연회 등이 25~26일 양일간 열린다. 영국에서는 5월 26일부터 9일간 런던 불교협회를 중심으로 거리행진, 가면무도회 등 행사가 펼쳐진다.

인도 바라나시·녹야원 등서 수일간 축전
스리랑카 '5월 성스러운 달'...각종 페스티벌



미주 지역의 사람들은 음력 4월 8일, 또는 4월 보름(Full Moon Day)을 전후해 봉축행사를 연다. 지난해 LA에서 열린 봉축행사 장면



티베트 스님과 불자들이 '붓다 자안티' 날을 맞아 사원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다.

초파일 佛生會법회 녹차로 관욕식 일본
9·11테러 희생영가 위로법회·행진 美 뉴욕



일본에서는 양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을 비롯해 계절별로 다양한 지역축제(마쓰리)가 열린다.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쿠로이시에서 열리는 네푸타 축제는 연등제에서 유래했다.

새롭게 불교가 되살아나고 있는 불교 중중국 인도에서는 음력 4월 15일 붓다 자안티(Buddha Jayanti)란 국경일에 맞춰 봉축행사를 연다. 며칠 동안 바라나시, 녹야원, 봄베이, 산치 등에서 축제와 거리행진이 열린다. 네팔에서는 부처님 탄생지인 푼나비 동산과 스와야무 사원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삭축제가 열린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는 5월 29일 위짜카 부처(Vesakha Puja) 날을 공휴일로 정해 봉축하고 있다. 이날은 불교 관련 공휴일 중 가장 신성하게 지내는 날로 부처의 탄생, 성도 및 열반을 기념하는 날이다. 마카부차를 비롯한 전국의 사원들에서는 스님들이 설법을 하며 저녁에는 사원 주변에서 촛불 행진이 벌어진다.

스리랑카 불자들에게는 5월 22일 하디지 축제일(Hadi Festival Day)을 비롯한 5월 한달이 가장 특별한 만월(Full Moon)의 성스러운 축제의 달이다. 부처님께서 태어나 깨달음을 얻고 해탈한 날을 함께 기념하며, 색종이로 베삭(Vesak)등을 만들어 집안, 사원, 거리를 장식한다.

우리나라처럼 음력 4월 8일에 봉축행사가 열리는 대만과 홍콩에서도 대체로 봉축행사가 열린다. 1999년부터 부처님오신날을 국가제정 공휴일로 선포한 대만은 음 18, 19일 양일간에 걸쳐 성탄기념 육불(浴佛)행사 등 봉축행사를 갖는다. 18일부터 꽃차 행진과 불교음악예술공연, 불교학술회의, 관육 법회 등의 행사를 갖는다. 홍콩에서

김재경 기자 gkim@buddhazip.com



네팔의 불자들이 '붓다 자안티'를 맞아 불탑을 참배하고 있다.



태국 스님들은 5월 29일 '위짜카 부처' 날이 오면 부처님 전에 꽃 공양을 올리고, 신도들에게 설법을 한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서 현지인과 교포 어린이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제불교회의의 봉축 포스터.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인도 나그푸르의 티사푸미에 모인 수만명의 불자들.

불국정토를 기원하는 특별공연

연등축제공연 **고려의 아침** MORNING OF KORYO

한국공연예술의 메카 서울예술단에서
13세기 팔만대장경 속에 담겨있는 고려인의 佛心을 <고려의 아침>에서 되살립니다.

평화의 축제 <고려의 아침> 팔만대장경을 통해 고려인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세계에 전합니다. 불교음악의 포교자 법현스님 직접 출연 법현스님이 법패를 통하여 불교 음악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불교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적은 스님을 통한 전통사찰음식 전시와 대학생들의 이벤트 공연이 선보입니다. 공연수익금의 일부를 '평화의 정신'을 기리는 기금으로 조성. 공연 후엔 '평화기원 연등 피우기' 행사가 진행되고, 수익금의 일부는 '북한어린이 및 아프카니스탄 난민 돕기 기금'으로 조성됩니다.

특별출연 법현스님 송용태 강권은 장금이 송 연 김수용 유희성 박민석 정유희의 서울예술단 단원 및 객원 스태프 예술총감독 신숙희 / 연출 신숙희 이병훈 / 작곡 안숙선 / 작곡 이준호 / 안무 채성욱 / 연기지도 김수기 / 미술 천경은 하성욱 / 의상 황연희 / 조명 최형운 / 음향 권도경 / 분장 김대영

2002.5.25(토)~5.30(목) 8:00pm **올림픽공원 88마당**

제작 서울예술단 제작진행 한국시스무대 협찬 한국담배인삼공사 후원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국민체육진흥공단, KBS한국방송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계종,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방송, 한국청문학회기탁

VIP석 50,000원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523 - 0986 예약 티켓파크 1588-1555 www.ticketpark.com

공연장소안내

<올림픽공원 찾아오는 길>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역 하차 3번 출구
지하철 8호선 올림픽공원역 하차 1번 출구
지하철 2호선 올림픽공원역 하차 1번 출구
- 버스 21, 292, 300, 568, 569, 813, 813-1, 30-1
상하차 하차 3번 출구
- 버스 21, 292, 300, 568, 569, 813, 30-1, N

다이너미컬 퍼포먼스 페스티벌 2002 Aquatic Korean Festival 2002 서울국제예술제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2002 서울국제예술제

www.spac.or.kr